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조용주 20170780

대학교에 입학하고 페미니즘 관련 강의를 처음 수강했을 때, 교수님이 “어떤 이론이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이론이 된다. 학문적으로 페미니즘은 블루오션 그 자체다.” 정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정확한 단어는 아니다,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셨다.) 이는 페미니즘을 처음 배워가던 당시의 내게 매우 인상깊은 이야기였고, 이후 사회학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혐오적 논리 전개를 마주하며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이었다.

본 책의 저자, 낸시 프레이저는 앞선 이야기처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현대 사회학 이론들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기존 사회학 이론들의 소수자 배제에의 맹점들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때 재구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쿤의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페미니즘의 현대 사회학 이론의 재구성은 기존 사회학 이론의 폐기인가, 감싸안기인가? 적어도 본 책 내의 프레이저에 따르면, 페미니즘이 행하는 재구성은 폐기보다는 감싸안기에 가깝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관계처럼 말이다. 이는 하버마스에 대한 프레이저의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

하버마스는 사회가 체계, 생활체계로 나뉜다는 이중사회론을 주장했다. 이때 이중사회론의 체계는 자본주의의 영역으로서 화폐와 권력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생활세계는 가족의 영역으로서 의사소통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즉 체계는 공적 성격을 띄며, 생활체계는 사적 성격을 띤다. 더 나아가 하버마스는 체계는 물질적 재생산을, 생활체계는 상징적 재생산을 이뤄낸다고 이야기한다.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의 이론의 젠더맹목성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이중사회론은 남성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대립구도를 통해 남성 지배구조를 은폐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게끔 한다. 성별에 기반한 복합적 권력 관계들을 너무도 단순한 개념으로 치환시켜 대립구도를 만들어, 정작 성별에서의 대립구도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생활체계는 가정이다. 그는 가정을 문화적 재생산의 공간으로 보고, 의사소통 합리성에 따라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이를 고려할 때, 가정은 보다 평등한 개인 간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문화적 공간으로 비춰진다. 화폐, 권력이 지배하는, 권력에 따른 착취와 불공정이 팽배한 체계와는 정반대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같은 체계와 생활체계의 대립, 즉 권력에 의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자본주의 공간과 비교적 평등한 문화적 가정 공간이라는 가상의 대립이 가정 내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하버마스의 생각과 달리, 가정 역시 화폐와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남성의 임금은 남성에게 화폐와 권력을 쥐어주며, 이는 여성을 가정 공간에 종속시켜 가사노동이라는 무임금 착취의 굴레에 빠뜨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렇듯 하버마스의 이분법을 맹렬히 비난한 프레이저지만, 하버마스의 맹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프레이저는 이중사회론을 연상시키는, 혹은 대응하는 대안을 내놓는다. 프레이저는 문제를 이중사회론에서와 같이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며, 각각에의 대안으로 재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물론 프레이저는 두 문제와 대안은 결국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버마스의 관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하버마스 이론 자체의 폐기보다는 기존 이론의 수정과 보완에 가까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프레이저는 하버마스 이후에도 푸코, 라캉 등의 사회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간다. 본인은 이 중 주디스 버틀러에 대한 프레이저의 반박과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유착을 비판하는 부분이 페미니즘의 현대 사회학 이론 해석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프레이저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잘 드러낸다고 느꼈다.

프레이저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이자 퀴어 운동가인 버틀러는 프레이저를 우회적으로 신보수주의 마르크스주의자라 부르며 프레이저가 분배와 인정 중 인정의 부분을 경시한다고 주장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버틀러의 주장이 자신이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억압을 단순 문화적인 것, 사소한 것 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프레이저는 버틀러의 자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비판에 따른 자신에의 퀴어혐오적 잣대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논리 자체의 무결성을 주장한다. 프레이저는 자신이 결코 게이, 레즈비언의 억압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프레이저가 퀴어들을 향한 사회의 억압을 단순 문화적인 것, 즉 인정의 문제 중 일부 그 이상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분배적 측면에서도 퀴어들을 향한 억압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프레이저는 그럼에도 모든 퀴어에 대한 억압이 인정과 분배의 결합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퀴어에 대한 억압은 문화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며, 문화적 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의 불평등까지 이어지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공간적 배경 하에 서라는 것이다. 즉, 퀴어에의 불인정이 분배의 불평등으로 반드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의 예시로 프레이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한다. 프레이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퀴어는 인종과 성별의 경우처럼 이분법에 따른 명시적 착취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거대 기업에 한정해 바라볼 때) 퀴어 친화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다.

앞선 프레이저의 주장에 위치한 퀴어혐오적 지점들은 차치하고, 이러한 버틀러와 프레이저의 논박 자체는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페미니즘을 통해 해석하는 두 학자 간에도 이론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회학 이론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석의 경계가 수없이 팽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페미니즘 내부의 갈등(혹은 이견)은 책 후반부 프레이저의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유착에 대한 비판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신자유주의 이전 페미니즘은 분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의 여성 배제, 민주주의 내에서의 여성 배제, 노동자 개념에서의 여성 배제 등 국가 주도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며 국가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자, 페미니즘은 그 운동 방향을 자연스레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요구에서 사회에 대한 정체성 수용 요구로 전환하게 된다. 즉 분배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정에 집중한 페미니즘의 운동방향은 실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방향의 문제는 경제정치적 수혜 대상, 즉 분배 수혜 대상이 중상위층 여성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요구는 문화적, 표상적 평등의 요구로 이어지고, 이는 대표성과 형식성에 기반한 성평등을 낳는다.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인정의 극복은 경제자원의 보편적 분배가 아닌 중상위층 여성들에의 경제자원 수혜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 빈곤층 여성들은 자연스레 배제되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인정에 집중하는 현대 페미니즘의 운동방향을 신자유주의와의 결탁이라 지적하며 분배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분배가 인정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분배와 인정 모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측면에서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양방향에서의 운동은 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노동 역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성 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존 사회학 이론을 해석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평행세계를 탄생시키는 것과 같다. 기존의 여성 혹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물이해에 기반한 사회학 이론들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완전히 새롭고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학계가 가진 숙제는,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이론적 평행세계와 백인, 남성 등의 기득권 중심 이론 체계로 대표되는 기존 이론적 세계의 통합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추후 등장할 이론들이 사전에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쓰여야만 가능할 것이다.